

광란을 중지하라!

유토피안 (Utopians: 전쟁광)들의 약소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안

제프리 슈타인버그 (Jeffrey Steinberg)

2 월 19-22 일 경, 미국과 영국의 몇몇 신문에서는 1 월 10 일 자 미국 국방부 문서의 일부를 게재하고, 부시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들과 공조하거나 대량 파괴 무기(WMD)를 소유하고 있는 이라크등의, 제 3 세계 독재자들의 제거를 위해 신세대식 소형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데일 크라인 박사는 2003 년 1 월 10 일자 메모에서, 미국 전략 사령부의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 본부에서 열릴 2003 년 8 월 회의에 대한 계획을 개관하면서, 이 회의에서는 과학자와 군사 전략가들이 모여 미군부의 공격무기 비축의 일환이 될 초소형 핵폭탄, 지하 방공호탄 등, 신세대 첨단 핵병기의 생산과 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국 이념상,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기본적으로 평화국가인 미국에서, 핵폭탄 선제공격은 금기사항이었다. 그렇지만 만약 이들 유토피안(전쟁광)이 주도권을 갖는다면, 미국은 조만간 핵폭탄 선제공격의 금기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미, 2004 년 대통령후보로 나설 린든 라루쉬 (Lyndon LaRouche),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 (Edward Kennedy)와 다이앤 화인스타인 (Diane Feinstein)등,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유토피안(전쟁광)들의 미국 핵정책을 개악하려는 광란을 막기 위해 강력히 반격하고 있다.

라루쉬는, 이라크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것은 미국의 수치이므로, 이를 계기로 이라크전쟁 자체를 제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 국회 상원의원 케네디와 화인스타인도 문제를 제기하여, 결의안 초안을 동료의원에게 돌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 측근의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부시 행정부의 강경 주전론자들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막후에서 심각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핵무기를 쓸 지도 모른다는 전망은 페르시아만 전쟁의 공포를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라루쉬는 이미 부시 대통령에게 이러한 광란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파열의 길 -

1 월 10 일자 문서의 유출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었다. 작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 역지력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비축해두는 지난 50 년간의 정책을 뒤집어엎으려는 시도를 착착 진행시켜왔다. 이를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 2002 년 1 월, 부시 행정부는 의회가 요구하는 미국 핵무기 계획에 대한 보고서인 핵 자세 검열 (Nuclear Posture Review)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미국 핵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있는 7 개국을 거명했다: 러시아, 중국,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및 시리아.

* 2002 년 2 월 22 일, 국무부 무기 통제와 군축 부서를 지휘하는 대표적 치킨-호크(chicken-hawk: 비열한 강경론자) 인사, 존 볼튼 (John Bolton)은 워싱턴 타임스(the Washington Times)지와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기를, 온 세계가 2001 년 9 월 11 일 사태 이후로 너무나 급격히 변해서, 대량 파괴 무기(WMD)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악당 국가들(rogue states)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볼튼은 워싱턴 타임스지를 통해, 핵무기 선제 사용 불가 주의를 계속 견지한다는 것은 국제 상황에 대한 비현실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럴싸한 억제 이론들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리라는 생각은 소극적 안전 보장책임 뿐이며, 9 월 11 일 사태로 인해 오류임이 판명났다. 고 말했다.

* 2002 년 9 월 14 일, 부시 대통령은 비밀문서, 국가 안보 대통령명(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7 을 서명했다. 그 문서에 의하면, 미국은, 미국과 해외 주둔군, 우방국과 동맹국에게 대량 파괴 무기(WMD)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핵무기까지를 포함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계속 천명한다. 고 한다.

* 2002 년 12 월 11 일, 부시 행정부는 대량 파괴 무기(WMD) 격퇴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란 제목의 비밀 취급 해제 본, NSPD-17 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신 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 쓸 수 있다 고 밝혀, 같은 내용을 약간 위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003 년 1 월 31 일, 워싱턴 타임스지는 NSPD-17 의 존재를 폭로하는 제 1 면 기사에서, 이라크전쟁 계획이 핵무기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미군의 방어뿐만 아니라 재래식 폭탄을 견딜 수 있는 지하 내장 이라크 시설물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문 보도에 이어서 이 기밀문서가 공개되었다고 경고했다.

* 2003년 2월 19일, 런던 가디안(the London Guardian)지는 8월의 오마하 회의 계획에 관한 2003년 1월 10일자 펜타곤 각서를 최초로 발표했다. 런던 가디안 및 주요 신문들은 크라인 메모 사본을 그레그 멜로 (Greg Mello)로부터 입수하였는 바, 그는 애초에 유출 문서를 받은 로스 알라모스 스터디 그룹 (the Los Alamos Study Group)을 이끌고 있다.

- 12년 묵은 음모 -

사실상, 미국의 공격형 군사 병기로서 신세대식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은 10년 이상 추진되어왔다. 그것이 최초로 표면화된 것은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 직후의 일이다. 12년 전 바로 그 때, 현재 부시 행정부의 소위 신 국가 안보 독트린 — 예방적 전쟁 —은 이미 기초되고 추진된 것이다. 이 안은 딕 체이니 (Dick Cheney), 폴 울포위츠 (Paul Wolfowitz), 루이스 리비 (Lewis Libby), 에릭 에들만 (Eric Edelman), 잘마이 카릴자드 (Zalmay Khalilzad)들에 의해 1991년 만들어졌다. 1991년 당시, 그들은 모두 아버지 부시의 펜타곤에 함께 있었다. 지금, 그들은 아들 부시의 펜타곤의 일부를 다시 지휘하고 있다.

1991년 4월, 사막의 폭풍 작전 (the Operation Desert Storm) 직후,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체이니는, 소련 붕괴 후 도전받지 않는 세계 군사 최대강국이 된 미국이 새롭게 형성된 군사 전략적 현실에 대처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었던 울포위츠는 자신의 부관인 리비, 에들만, 카릴자드와 팀을 이루어, 미국의 군사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어떠한 국가나 국가간 동맹이라도 타도한다는 미국의 군사 제국화를 위한 계획을 체이니에게 제출했다. 신세대식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 새로운 병기안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1992년, 체이니와 그들 집단은 예방적 전쟁안과 초소형 핵폭탄의 선제공격 사용을 국방 계획 지침 (Defence Planning Guidance) 초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수석 안보 보좌관이었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Brent Scowcroft) 장군과 제임스 베이커 (James Baker III)의 권고를 받아들여 거부하였다.

그러나, 1993년 1월, 부시가 빌 클린턴에게 패한 후, 체이니는 재차 동일한 유토피안(호전적) 제안을 최종 정책 선언, 1990년대의 국방 전략: 지역 방위 전략 (Defence Strategy for the 1990s: The Regional Defence Strategy) 에 집어넣었다.

그 문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다가오는 10 년 동안, 우리는 전략 및 전술 억제 군사력의 적당한 균형을 반드시 유지하여,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 무기(WMD)와 그 운반 수단으로부터의 위험을 완화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전술 군사력을 포함한 생존 가능한 핵 억지 군사력의 준비완료 태세를 갖출 것이 요청된다. 또한 우리는 군사력의 현대화와 성능 향상을 달성해야만 한다.

일반 독자에게는 이러한 어휘가 애매모호하게 들리겠지만, 국방 전략가와 과학자들 사이의 유토피안(Utopians: 전쟁광)들에게 이는 너무나 명백한 지침이다. 1991 년 10 월에 이르면, 미 전략 공군 사령부는 벌써 미래의 초소형 핵무기 사용에 대한 연구 명령을 내려 두고 있는 바, 로스 알라모스 국립 실험실 (Los Alamos National Labs)의 두 과학자들은 미니, 초소형, 극소 핵폭탄의 개발과 배치를 촉구하는 비밀연구를 공표했다.

물론, 1991-93 년 무렵의 이러한 광란극의 고안자들은 다시 권자에 복귀해 있다. 체이니는 부통령, 그의 일급 참모 국가 안보 보좌관은 루이스 리비, 폴 월포위츠는 국방부 차관, 에릭 에들만은 리비의 부통령실 핵심 전략가들 중 한 사람, 잘매이 카릴자드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내 반대 세력과의 연락관인 것이다.

2003 년 2 월 4 일, 워싱턴의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력한 치킨-호크(chicken-hawk: 비열한 강경론자) 대변자이며 자칭 만능 파시스트 (universal fascist)"인 마이클 레딘 (Michael Ledeen)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였는바, — 그가 적극 지지하듯이 — 만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이란, 시리아, 레바논과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겨냥하는 일종의 지역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부시 펜타곤 내 유토피안(호전적) 책략가들을 막지 못한다면, 그들은 지역 전쟁 이상의 것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 린든 라루쉬가 누차 경고했듯이, 이는 제 3 차 세계 대전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핵전쟁으로 가는 재앙이 될 것이다.